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 1(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반갑다 2019! 새해 첫 날 경북 곳곳 해맞이 인파 북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기해년 새해 첫 날.. 포항 호미곶에서 맞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도민 행복기원, 2019년 희망찬 출발	관광마케팅과	 사진 별첨
② 경북도, 설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1,200억원 규모,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중소벤처 기업과	
③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관리가 달라집니다! 경북도,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예측시스템 도입으로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보건환경 연구원	
④ 도내 전 지역 119 구조 골든타임 확보 잔결음 경북소방본부, 119안전구조센터 구조능력 향상 교육 -	소방본부	사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 자	과 장	김 병 곤		
			사무관	황의철	담당자	장수희
		연 락 처	054-880-3212			

반갑다 2019! 새해 첫 날 경북 곳곳 해맞이 인파 북적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기해년 새해 첫 날... 포항 호미곶에서 맞아 -
-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도민 행복기원, 2019년 희망찬 출발 -

“올해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날 경북지역 곳곳에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인파가 몰렸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취소나 축소됐던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1일(월)부터 1월 1일(화)까지 23개 시군에서 28건의 제야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경북도는 31일 자정 삼사해상공원에서 기해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경북대종 타종식을 3년 만에 개최했다.

동해안 일출 명소인 호미곶에도 도민과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금년에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포항 방문의 해 선포와 함께 포항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일출 시각에 맞춰 해군 6항공전단 헬기의 축하비행과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도수호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독도수호 플래시몹은 포항의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70명이 관광객들과 함께 ‘아리랑’과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나라사랑과 독도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이날 영하권의 날씨에도 호미곶을 찾은 관광객들은 외투와 담요를 몸에 두르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렸다. 오전 7시 33분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의 첫해가 떠오르자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르며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고 새해 소원을 빌었다. 이어 1만 명분의 떡국을 나눠먹으며 긴 기다림의 추위를 달랬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윤종진 행정부지사, 전우현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간부도 대거 참석해 새바람 행복실현의 결의를 다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힘들었던 지난해 어려움 모두 떨쳐버리고 같이 오신 가족·친지·동료의 따뜻한 손을 잡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재도약하는 한해 될 것”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새바람 행복경북을 향해 도민들과 손잡고 달려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붙임 사진자료

제21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 축 제 개 요 》

- 기 간 : 2018. 12. 31.(월) ~ 2019. 1. 1.(화) / 1박 2일간
- 장 소 : 호미곶 해맞이 광장일원
- 주 제 : 호미곶의 새 빛, 포항의 희망을 깨우다.
- 주최/주관 : 포항시/포항문화재단
- 참관인원 : 약 50만명
- 주요내용 : 전야행사, 자정행사, 해맞이행사, 부대행사 등

□ 자정행사 개요

- 일 시 : 2018. 12. 31.(월) 23:10 ~ 00:30(100분)
- 장 소 : 호미곶 해맞이 광장
- 주요인사 : **행정부지사**, 포항시장, 국회의원(김정재, 박명재) 등
- 참석규모 : 5만명 정도(초청인사, 관광객 등)

□ 시간계획(안)

구 분	일 시		주 요 내 용	비고
전야 행사	18:00~20:10	130 ʼ	▲ 해오름 버스킹 페스티벌(버스킹 공연)	
	20:10~21:40	90 ʼ	▲ 마당놀이 <호미곶 효녀 심청전>	
자정 행사	21:40~23:10	90 ʼ	▲ 창현 거리노래방 호미곶편	
	23:10~00:00	50 ʼ	▲ 해넘이 잔치 - 새해 축하 메시지 영상 (도지사, 국회의원, 포항시장 등) - 포항시 승격 70주년 기념 앰블럼 발표 - 포항시 승격 70주년 기념 희망 퍼포먼스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포항시장 등)	
	00:00~00:10	10 ʼ	▲ 팡!팡!불꽃잔치(예술불꽃 화랑)	
	00:10~00:30	20 ʼ	▲ 대동한마당 월월이청청(포항문화원)	

※ **행정부지사 : 퍼포먼스**


□ 해맞이 개요

- 일 시 : 2019. 1. 1.(화) 07:00 ~ 08:50(100분)
- 장 소 : 호미곶 해맞이 광장
- 주요인사 : **도지사**, 국회의원(김정재, 박명재)
이강덕 포항시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등
- 참석규모 : 12만명 정도(초청인사, 관광객 등)
- 주요내용 : 대북공연, 새해인사, 일출행사 등

□ 시간계획(안)

구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해맞이 행 사	07:00 ~ 07:10 10'	포항시 승격 70주년 팡!팡! 대북화고	
	07:10 ~ 07:20 10'	새해인사 (도지사, 포항시장, 국회의원, 도의장, 시의장)	신년사
	07:20 ~ 07:25 5'	신년시 낭송	
	07:25~07:30 5'	포항시 승격 70주년 기념 '포항 방문의 해' 선포 퍼포먼스	
	07:30 ~	새해일출	
특별 부대 행사	2018.12.31 ~20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치떡국먹으면 돼지(떡국나눔) ▲ 소원쓰면 돼지 ▲ 아트웍 호미곶 해맞이 ▲ 사진남기면 돼지(포토존) ▲ 추억만들면 돼지(체험존) ▲ 호미보이는라디오 ▲ 호미프리마켓(협의 중/여성문화관) ▲ 호미야시장(먹거리장터) 	

※ **도지사 : 신년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기업과			
		작성 자	과 장	이 근 식		
			팀 장	김명제	주무관	신용희
		연 락 처	054-880-2681			

경북도, 설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 1,200억원 규모,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인건비, 자재 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이번에 추가한 벤처기업을 포함해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11개 업종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정비·폐차업, ⑪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도 중점 육성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벤처기업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인증 획득기업(NET, NEP, 성능인증 등)’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용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용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용자추천 결과를 28일(월)까지 시·군에 안내할 예정이다. 용자추천 결정된 기업은 설 연휴 전인 2월 1일(금)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설 대비 운전자금 용자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경북도는 자금지원·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각 시·군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미래전략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새마을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도시과	054-370-2232
구미시	투자통상과	054-480-6034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2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054-639-6124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	054-930-6436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6
문경시	경제진흥과	054-550-6168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259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830-6516			


◆ 설(2.5.) 대비, 자금수급(인건비·원부자재 구입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도모

□ 개 요

- (용자규모) 1,200억 원
 - * 시·군 자체 용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도 이차보전율) 1년간 대출이자의 2% * (사·군 이차보전율) 2~5%로 시·군별 상이
- (사 업 비) 24억 원 (이차보전금)
- (접수기간) '19. 1. 2.(수) ~ 1. 11.(금) (10일간)
 -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자금 미소진시는 연말까지 접수·지원
- (접 수 처)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추천의뢰) : '19. 1. 15.(화)까지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 용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업체)는 '19. 1. 28.(월) 이전
- (신청절차) 접수 및 용자추천의뢰(시·군) ➡ 추천결정(경북경제진흥원) ➡ 결정통보 ➡ 대출실행(업체) ➡ 사후관리

2019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개요

- ◆ (용자규모) 9,802억원(도 3,300억원, 시·군 6,502억원) * 은행협력자금
- ◆ (용자한도) 업체당 3억원(우대 5억원, 1년거치 약정상환)
- ◆ (사 업 비) 256.5억원 (도 66억원, 시·군 190.5억원)
- ◆ (지원업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1개 업종* 및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등 “도 중점육성기업**” 은 업종 무관
-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전기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 ⑤ 소방시설업, ⑥ 운수업, ⑦ 무역업, ⑧ 관광숙박시설업, ⑨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 자동차정비·폐차업, ⑪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도 중점육성기업) ① 사회적기업, ②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 실라리안 기업, ⑤ Pride 기업, ⑥ 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 ◆ (지원내용) 용자지원 및 대출이자 일부(2~5%, 시·군별 상이)를 1년간 지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작 성 자	환경연구부장	백 하 주		
			대기보전과장	안상영	주무관	송정한
		연 락 처	054-339-8171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관리가 달라집니다!

- 경북도,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예측시스템 도입으로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환경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경호)도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분석,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대기질 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삼한사미(三寒四微,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일상화돼 버린 미세먼지는 측정에만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 발령에도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보발령시간을 45분에서 3분으로 줄이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자동화 사업을 1차로 완료했다. 2차로 ‘대기질 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기질 진단시스템의 구축을 맡고 있는 송정한 박사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하는 진단시스템은 농도만을 전달하는 현재의 시스템과는 달리 예측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시·도 단위로 이뤄지는 환경부 예보와 달리 1km² 격자 단위의 정밀 예보가 가능하며, 미세먼지 발생 시기는 물론 이동경로와 해소시기를 예측해 미세먼지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송 박사는 2007년에도 대기측정망 자료를 이용, 대기오염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기 한 이 분야 전문가이다.

경북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지만, 발생량과 경보 발생일수는 전국 상위에 속한다. 평균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단기간 고농도 노출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전국에서 세 번째 미세먼지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이라는 발 빠른 대처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예산절감과 효과적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경북형 ‘대기질 진단시스템’의 공동 활용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북도는 올해 13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 증설로 모든 시·군이 대기오염측정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며,

“이로써 정확한 우리동네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과학적인 대기질 진단을 통한 미세먼지 피해 사전예방에도 총력을 기울 이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1(화)】	담당부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작 성 자	단 장	황 영 희		
			소방령	전태호	소방경	김주현
		연 락 처	054-880-6513			

도내 전 지역 119 구조 골든타임 확보 재검증

- 경북소방본부, 119안전구조센터 구조능력 향상 교육 -

경북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19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 119안전센터에 구조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해 도내 전 지역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일(화)부터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119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청송, 영양, 춘양, 의흥, 선산119안전센터에 119특수구조단 소속 긴급기동대원을 교관요원으로 배치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압절단기, 에어백 등 유압장비 사용법과 농기계사고 및 교통사고 구조기법, 구조현장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을 교육해 119안전센터의 자체 구조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영양읍의 경우 119구조대와 60km 이상 떨어져 있어 교통사고 등 긴급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돼 관할 119안전센터의 구조능력 향상이 절실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교육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구조대와 20km 이상 떨어져 있고, 최근 3년간 구조출동 건수가 300건 이상인 도내 8개 안전센터에 대해서도 구조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섭 경북소방본부장은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구조장비 및 구조인력을 보장해 도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출동,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도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될 것이다” 고 다짐했다.

붙임 사진자료